# 공존이 절대로 불가능한 관계

## (에스더 9:1~16)

11.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13.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14.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15.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공존이 절대로 불가능한 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공존이 절대로 불가능한 관계'
여러분은 이러한 관계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법원에서 나오며 이제는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당신만 아니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입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보면 앞서 말한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후보단일화를 한다든지 소속한 당이 합당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다른 후보들이 합친다거나 합당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저 두 분의 관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의 회심을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향해 좌파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홍준표를 독일의 나치와 같은 극우 성향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후보든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 복음과 공산주의 이념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이념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바라고 기도할 수는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이념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이념을 포기하든지 복음을 가진 자가 순교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선민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주도하여 작성되었던 유대인 말살 조서가 반포된 것이 12월 13일이었는데, 에스더로 인해 3개월 만에 새롭게 조서가 반포되고 9개월이 흘러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새로 반포된 유대인들의 생명보호권을 인정한 조서에는 나라의 관리들이 동조함으로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멸절시켜 나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왕의 허락으로 수산성에서 12월 13일에 오백 명을 죽이고, 14일에도 삼백 명을 죽였으며, 하만의 아들 열 명의 시체를 매달게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도 13일에 유대인의 대적들을 칠만 오천 명이나 멸절시키는 처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6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인과 대적들 간의 싸움이 어떠한 이권을 놓고 벌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자체가 서로를 지양하는 공존불가능의 관계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음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선민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자들을 오히려 멸절시켰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선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의 대적들처럼 선민에게도 반드시 공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공존이 불가능한 대적으로 여겨서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 시절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유대인과 대적들 간의 멸절을 허락하는 두 조서가 동시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선민에게는 반드시 공존이 불가능한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탄압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들을 멸절시키려는 자들을 향해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에게는 공존 불가능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로마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결국 AD 313년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대체 누가 공존 불가능한 대상일까요?
이 깨달음이 없다면 나의 선민 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워져버리고 맙니다. 공존하지 말아야 될 자들과 공존하는 동안에 내 선민 됨과 구원은 지워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 불가능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2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지은 여자와의 공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들과 몸을 팔고 살던 창녀들과도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시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곱 번이나 반복하시며 거부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저주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퍼부으셨습니다.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이 된 이유는 바로 지옥으로 갈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앞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산헤드린공회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결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된 자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평생 동안 배를 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음은 비어있어서 채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흡입력을 인간 세상에 붙이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땅에서 먹잇감을 찾듯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아 헤매며 기어 다니는 이들이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다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몸의 건강으로부터 시

작해서 가족과 돈과 형통과 성공이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회조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것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뱀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도 추구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독설을 퍼부으셨던 것일까요?
이들은 유일한 참된 기쁨이자 만족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매특권을 가지고 가르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과 선민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는 사람과는 더 이상 공존의 가능성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공존하려 할 때에 나의 선민 됨조차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였습니다. 즉 이방인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9장 19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던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공존의 가능성이 불가능한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과 독사의 새끼로 비유하신 자들을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공존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로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곧 땅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는 자들이었다는 것이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을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소망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다음에 갈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곧 미래에 주어질 일로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며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기쁘고 행복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전해졌을 때에 마음을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공존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마음이 부활과 승천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란 그 반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의인된 자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업과 건강과 무병장수와 자녀의 형통과 같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며 기쁨과 만족의 재료로 삼으리라는 자들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의 복음의 핵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처럼 비어있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배를 땅에 붙이고 먹을거리와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는 십자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존재할 뿐이지 십자가의 원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마음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한다면 나도 그들과 같게 될 것이고 나의 선민 됨을 스스로 지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한 후에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존 불가능한 자들을 깨달았기에, 공존할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교제에 대해 경계했던 것입니다. 구역예배나 소모임을 가진 후에 곧바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모임에는 가지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존 불가능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듯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선민 됨을 지우는 공존 불가능한 자들에 대한 깨달음이 명확해지게 해주셔서, 나의 구원을 점점 더 명확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